

2014 연간 실행 보고서

모든 아이의 아이즈



목차

- 03 인사말
- 04 올마이키즈가 걸어온 길
- 05 교육은 인권의 기본
- 06 주요 연혁
- 07 제1회 올마이키즈 자원봉사자 학교 열려
- 08 나눔협력자 소개
 - 성가소비녀회 필리핀공동체
 - 행복공장 캄보디아공동체
- 14 네팔 급식지원
- 15 필리핀 의약품지원
- 16 함께하는 사람들
- 17 후원어린이 현황
- 18 2014년 연간 결산
- 19 2014년 함께 해주신 회원

2014 연간보고서 |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56 신흥빌딩 401호
연락처 | 032-214-7700 팩스 | 032-214-7701 발행일 | 2015년 7월
e-mail | allmykids@hanmail.net 홈페이지 | www.allmykids.or.kr

살며시
보드라운 손을 내밀어
이름 모를 아이를
잡아주셨습니다.
그 나눔은
아이의 가방이 되고
아이의 교복이 되고
아이의 수업료가 되었으며
이내
꿈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3주년! 고맙습니다

이사장 김 영 옥

인천교구 소사본3동본당의 신자들과 시작
한 올마이키즈가 3년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통해 가난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나눔을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보자고,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가족적'
관계를 맺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후원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진정한 나눔의
모범을 보여 주셨고, 저희가 어설프고 부족
함이 많음에도 믿어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응원의 힘이 수도자들과 NGO
활동가들을 통해 천여 명의 아이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또한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자원 봉사자들의 재능 기부가 있었기에

운영이 가능했으며, 후원회원의 후원금
전액을 아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으며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미숙함을 거름삼아 새롭게 도약하고자
경기도청과 기획재정부에 사단법인과 지정
기부금 단체 등록을 각각 마쳤습니다.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세심한 사랑으로 돌보고, 회원들
과 진심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에게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리며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온 세상을 사랑
하는 것이며 온 세상의 구원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

- 마더 데레사 수녀

겨자씨 자라듯이 사단법인까지

올마이키즈(all my kids)는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란 뜻이다. 어느 사회에서나 작은 존재로 살아가는 어린이의 처지를 늘 기억하자는 뜻에서 영문 이름의 철자 모두를 소문자로 쓴다. 올마이키즈는 마치 작은 겨자씨가 자라듯이 성장하고 있다.

인천교구 소사본3동천주교회는 2009년부터 자선바자회를 열어 그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왔다. 첫 해 수익금은 지역 결식 어린이 후원, 2010년에는 지역 청소년 장학금 지원, 2011년에는 해외의 어려운 지역 세 곳을 후원하였다. 그 뒤 2012년 8월 김영옥 신부가 지속적으로 해외 어린이 교육을 돕는 방법으로 결연 후원을 시작해보자고 본당 사목회에 제안함으로써 올마이키즈의 씨앗이 뿌려졌다. 본당 교우를 중심으로 회원 모집이 시작되었고, 후원회원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다.

올마이키즈는 후원금 전액을 후원 어린이에게 전달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해외의 가난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수도지들과 협력하기로 하였다. 모든

한국 수도회에 이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수도회들로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2013년 2월, 1차로 125명의 어린이를 선정해 후원하기 시작했고, 2014년 말 현재 18개 수도회와 NGO와 협력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의 19개 나라 약 9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

이처럼 소박한 생각으로 본당 차원의 후원단체로 시작했던 올마이키즈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교구와 본당 신자들, 사제들의 호응이 컸기 때문이다. 특별히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홈페이지를 통해 가톨릭신자가 아닌 분들도 참여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 이 같은 성장과 변화에 맞게 2015년 4월 사단법인 설립과 2015년 6월 지정기부금단체 등록을 마쳤다.

왜 해외어린이 교육 후원인가?

해외 어린이를 후원하면서 올마이키즈는 특별히 교육을 후원하고자 한다. 어린이 교육 후원이 중요한 이유는 2000년 9월, 유엔이 발표한 새천년선언에서도 확인된다. 이 선언에는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비롯해 국제적으로 아주 긴급하다고 간주되는 8가지의 새천년개발목표가 제시되고 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아동이 초등교육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인 “보편적 초등교육의 달성”이, 당장 생명과 직결된 “절대빈곤과 기아의 퇴치” 다음인 두 번째 목표로 선정되었다. 교육은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가치, 즉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기본 전제이기 때문이다. 또 교육은 그 자체로도 매우 중요한 목표이지만 다른 새천년개발목표들을 실현하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교육 기회의 확대가 이루어질 때 소득이 증가되어 빈곤율이 감소하게 되고, 산모의 육아 지식도 높아져 영아 사망률이 줄어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보건 지식이 확산되어 산모의 건강도 개선되고, HIV, 말라리아 등의 질병을 이겨낼 확률도 커진다. 아울러 교육이 확대될수록 환경 보호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확산

이 가능해져서 지속가능한 환경 개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 대상국에서 벗어나 원조국이 된 나라가 된 힘에는 높은 교육열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처럼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교육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정관의 목적에 잘 드러난다. “전 세계의 가난한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줌으로써,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가난에서 벗어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감을 목적으로 한다.”

올마이키즈는 해외어린이교육을 후원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1)결연을 통해 어린이들이 공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2)교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 (3)재해, 분쟁, 질병 등으로 교육 중단 위기에 있는 어린이들이 계속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주요 연혁

2012	08.24.	올마이키즈(all my kids) 설립
2013	01.27.	1차 후원회 홍보(인천교구 소사본3동본당)
	02.27.	1차 125명 아동후원 시작
	03.13.	필리핀 현지 방문(바콜로드)
	12.03.	시리아 담당 수녀 간담회 및 현지 어린이 의류 전달(살레시오수녀회)
2014	05.21.	필리핀 현지 방문(마닐라, 바콜로드, 세부)
	07.21.	마살제도 담당수녀 간담회(예수성심수녀회)
	08.13.	탄자니아 담당수녀 간담회(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09.27.	필리핀(세부) 후원자간담회(말씀의선교수도회 사제)
	11.21.	봉사자학교(11/21~12/12 매주 금요일 4회)
	12.18.	인도 담당수녀 간담회(마리아딸수녀회)
2015	01.15.	사무실 이전
	01.22.	필리핀 담당 수녀 간담회(성가소비녀회)
	01.23.	비영리 사단법인 창립총회
	04.10.	경기도청 법인 설립 허가
	04.24.	사단법인 등록
	06.30.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 사단법인 등록에 따라 기존 후원금의 수납자 명의를 (재)인천교구천주교회에서 (사)올마이키즈로 변경되었습니다.

▶ 또한 지정기부금 단체에 등록이 됨에 따라 기존 종교기부금으로 공제되던 소득공제가 올해부터는 지정기부금으로 공제됩니다.

당신의 재능기부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제1회 올마이키즈 자원봉사자 학교 열려

2014년 11월 21일(금)~12월 12일(금) 매주 금요일 총 4회에 걸쳐 제1회 올마이키즈 자원봉사자 학교가 천주교인천교구 노동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제개발협력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에 짧은 홍보기간에도 불구하고 후원자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다. 미흡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강사진이 훌륭해서인지, 모아진 마음이 열정적이어서인지, 4회의 만남은 아쉽고 벅찼다.

〈행복한 나눔, 아름다운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첫 강의를 해주신 윤정숙(전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님, 〈해외원조, 좋은 의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관점을 일깨워주신 이상준(국제개발협력 컨설턴트)님, 〈자원봉사! 헬렌 켈러인가, 오드리 햅번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올바른 협력의 의미를 되새겨주신 유해숙(서울시사회복지대학원 교수)님, 마지막으로 〈너희가 어린이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올마이키즈의 활동에 대한 소개를 해주신 김영욱(올마이키즈 이사장)님까지, 한 주 한 주 교육이 이어졌다. 또한 봉사자 학교를 통해 인연을 맺은 운영진과 청년봉사단이 꾸준히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니 더욱 감사하다.

자원봉사자를 모십니다

해외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사 할 마음 따뜻한 자원봉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봉사내용

번역(영어, 프랑스어, 따갈로어), 문서편집, 홍보물제작, 영상제작/편집, 아동액자제작, 회원일반관리, 외부 홍보 외 (모든 영역별로 가능)

성가소비녀회 필리핀공동체

희망이 없는 곳에서 곁을 지키는 이웃이 되고자



공동묘지 위의 집.

공동묘지와 쓰레기 산의 아이들

2009년에 처음 필리핀에 진출한 성가소비녀회 마닐라공동체는 올마이키즈의 가장 든든한 나눔협력자 가운데 하나다. 수도회는 매트로 마닐라시의 철거민 집단거주지, 공동묘지지역, 쓰레기 매립지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다. 가장 열악한 지역은 공동묘지지역인데, 묘지 위에 집이라고 할 수 없는 가건물을 얼기설기 짓고 산다. 화장실이나 하수시설이 있을 리 없

다. 수도자들은 이들 지역을 매주 정기적으로 방문하면서 어린이와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2013년부터 올마이키즈가 후원하는 이곳 어린이들은 수도자들이 만난 어린이들 중에서도 더 가난하다. 수도회는 앞으로 시 정부가 제공하는 20평 남짓의 공간에, 마땅히 설 곳도 없는 엄마들이 모여 쉬면서 생계를 위한 기술을 배우고,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거나 놀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태어나서 처음 통장을 갖다

수도자들은 매주 한 번씩 후원 어린이 가정을 방문해서 후원금을 전달한다. 한꺼번에 주면 편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건, 후원금이 아이들 교육이 아니라 다른 곳에 사용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쓰레기를 주워 팔거나 빨래 일이 주요 수입원이다 보니, 하루 벌 어 하루 살기 급급하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이다 보니 손에 쥘 돈은 급한 곳부터 쓰기 쉽다. 한 달 후원금을 네 번으로 나누어주다 보면, 조금씩 우수리가



자기 이름의 통장을 태어나 처음 갖게 된 아이. 한 가정에 자녀가 보통 4~6명이고 9명이나 되는 집도 있다 보니, 제대로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다.

남았다. 고민 끝에 수도지들은 우수리 후원금을 후원 대상 가정들에게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데 활용하기로 했다. 통장을 만든 어린이에게만 우수리 돈을 주어, 아이들 미래를 위해 저축하도록 한 것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거의 저축하지 않는다. 어제 벌어들인 돈이 있으면 일하지 않고 노는 게 보통이다. 처음에는 통장을 만들지 않던 가정도 있었지만, 만든 집에만 우수리 후원금을 주는 걸 보고, 이제는 모든 가

정이 만들게 되었다. 저축한 돈을 함부로 쓰지 않게 하지만, 가족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면 써버리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그만큼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인생역전의 드라마는 없다

미래에 대한 계획도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주민들을



후원 어린이가 동네 꼬마들을 모아놓고 학교 놀이를 하고 있다. 학교에 다닌다고 무조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배우지 않으면 그나마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는 없다.

볼 때마다 답답하지만, 전혀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대를 물려온 끝 모를 가난, 열심히 공부해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취직이 보장되는 것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리핀 사회 현실에서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이나 대학 졸업자나 실업자로 놀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지만 후원 대상 가정 중에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아이와 부모들도 있다. 가정을 방문해보면, 방정리한 것만 보아도 삶의 태도가 환히 보인다. 가까운 곳에도 고등학교가 있지만, 좀 더 나은 학교에 다니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서 통학하고, 오가는 길에 쓰레기를 주워 팔아 학용품이나 생필품을 사는 아이가 있다. 방과 후에는 엄마를 도와 함께 야채 장사를 하는 아이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아이

들은 학교에 다니기를 싫어한다.

이웃이 되고자 그들 곁을 지킨다

아이들을 후원하는 우리의 바람은 후원 어린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가난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인간승리, 인생역전의 드라마는 그야말로 드라마 속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그래도 성가소비녀회 수도자들이 필리핀의 가난한 이들 곁에 머물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은 희망 없는 곳일수록 이웃으로서 곁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희망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이웃은 고통 받는 이의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공동묘지지역을 방문 중인 수도자들과 김영욱 신부

행복공장 캄보디아지부

나눔 줄 알아야 당당하게 홀로 설 수 있다



센터의 독서시간. 아이들은 외국동화보다 캄보디아 전래동화를 좋아하지만 캄보디아에는 좋은 어린이 책이 많지 않다.

가장 먼저 밥 먹이고 함께 노는 일부터

올마이키즈가 후원하고 있는 (사)행복공장 캄보디아 지부의 이효신 지부장이 가난한 캄보디아 어린이들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예수회 수사일 때였다. 이 아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자기 소명이라고 느낀 이효신 지부장은 수도회를 떠나 매월 3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동생의 약속만 믿고 2007년 6월 캄보디아로 갔다.

처음 시작한 건 열 살 미만의 길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을 먹이는 일이었다. 아이들 밥을 지을만한 부엌이 없으니, 길거리 음식을 사서 먹였다. 1년 뒤에는 학비를 내주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구걸이나 쓰레기 줍기 등으로 돈 벌기를 바라는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 뒤로도 밥을 먹이는 일은 계속했고, 2시간 동안 놀다 가도록 했다. 아이들을 그렇게라도 데리고 있어야 구걸하거나 쓰레기를 주우러 거리를 헤매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 센터 시작

이효신 지부장이 센터를 마련해 아예 아이들을 데리고 살면서 학교에 보내기 시작한 건 2012년 9월이었다. 센터에서 먹이고 재우면서 학교를 보내면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센터를 운영하는 이유는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제대로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돈벌이를 시키기 때문이었다. 센터 아이들은 명

절 때 집으로 돌아간다. 그때마다 이호신 지부장은 혹시 이번에도 부모가 돈벌이를 시켜서 돌아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한다. 그만큼 식구가 모두 먹고 살려면 한 푼이라도 아쉬운 살림들이다.

학교 공부만큼 중요한 생활교육

센터에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나 성적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1시간 정도 숙제도 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 자연스럽게 고학년이 저학년 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되도록 아이들을 자유롭게 하지만, 이호신 지부장은 한 달에 한 번 생활 나누기 모임을 가지려고 노력한다. 한 달 동안 잘 한 것, 부족했던 것을 나누는데, 솔직하게 자기 생각과 변화를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칭찬하는 방식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또 가끔 지역 어른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준다. 존경할만한 어른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 꿈을 갖게 하고 싶어서다.

유급생이 우등생으로 변한 뿌로난

센터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아이 중 한 명이 뿌로난이다. 이호신 지부장은 2007년 말 뿌로난을 처음 만났다. 그때 온몸이 틀어진 신체장애를 가진 뿌로난은 시각장애인 아버지와 함께 누나와 형

을 따라다니며 구걸하고 있었다. 뿌로난은 2011년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하지만 구걸을 다니느라 학교에 잘 나가지 못해 유급하였다.

센터를 시작하면서 이호신 지부장은 뿌로난의 누나 스라이쿠일을 센터로 데려왔다. 그런데 뿌로난이 통증이 심해 10미터도 제대로 걷기 어렵다는 얘기가 들려 되도록 한 식구에 한 명의 아이를 돌본다는 원칙을 깨고 센터로 데려 왔다.



안경을 쓰고 책을 읽는 뿌로난.

센터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뒤 어느 날, 뿌로난이 책을 코앞에 대고 읽기에 안경점에 데려가 보니 시력이 약하다 해서 안경을 맞춰 주었다. 한번은 뿌로난이 심각한 얼굴로 만약 자기가 반 일등을 하면 제일 먹



명절 때마다 센터 아이들은 직접 준비한 도시락은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준다.

고 싶은 소고기뭇살을 사주겠느냐고 물었다. 흔쾌히 약속을 했는데 며칠 후 우울한 얼굴로 내민 생활통지표엔 4등이라고 적혀 있었다. 유급했던 아이가 4등을 했기에 너무 기특해서 그날 저녁은 아이들 모두와 함께 소 뭇살 고기로 축하 잔치를 벌였다.

나눔 줄 아는 당당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구걸에는 익숙해도 나누는 경

힘이 없었던 아이들과 함께 이호신 지부장은 도시락 나눔 활동을 한다. 아이들이 직접 재료를 사고 요리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준다. 명절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절 근처에 나와 구걸하기 때문에 절 근처에서 나눔을 한다. 아이들에게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살필 줄 아는 마음과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이처럼 이호신 지부장은 아이들이 자립해서 남을 돌볼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네팔 넬령빠뜨르초등학교에
첫 급식 지원

친구 도시락만 바라보는 아이들



넬령빠뜨르 초등학교 급식실 밖에서

‘점심시간 내내 친구의 도시락만 바라보는 아이들’ 처음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시작한 이유이다.

2014년 5월에 김영욱 이사장은 네팔에 방문하였다가 네팔의 나눔 협력자 수녀님으로부터 딱한 사정을 듣게 되었다. 네팔의 특성상 아이들이 아주 먼 거리를 통학하고, 가난한 아이들은 점심 도시락을 싸올 형편이 못된다. 아침도 거르고 온 아이들이 대부분인데도 말이다. 70여 명의 아이들 중 점심 도시락을 싸온 아이는 많아야 2~3명. 나머지 아이들은 그 친구의 도시락만 뵈히 바라보다가 혹여 음식이라도 흘리면 서로 주워 먹는다고 한다. 아이들의 집이

몇 구비의 산을 넘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결연 관리도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개인결연을 대신해 전교생 70여 명에게 점심 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4년 6월부터 환인제약(주)의 후원금 1천만 원으로 넬령빠뜨르초등학교의 급식지원을 시작하였다. 첫 달에는 급식소 마련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5월말 네팔 재난현장을 방문한 이범석 이사가 급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고, 2015년 7월부터 새로이 김명숙님과 김상희님의 후원금 1천만원으로 2차 학교 급식을 지원할 예정이다.



의약품 지원해 주신 부천성모병원 관계자

먹는 것도 부실한데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생하며 양분을 뺏어먹는 기생충. 의약품 후원은 올마이키즈의 주력사업은 아니지만 학교보건 사업의 일환으로 구충제를 보내고 싶었다. 구하면 얻는다고 하였던가? 부천성모병원의 원목 수녀님께서 구충제와 피부연고, 감기약, 비타민, 지사제, 밴드를 기부해 주셨다. 약국에 주문해 주신 약품을 받으러 갔을 때의 설렘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큰 박스로 5박스가 넘는 양이었다.

때마침 한국에 방문 중이셨던 필리핀의 신부님 편에 의약품을 가득 안겨드렸을 때의 기쁨, 2014년 필리핀 방문 시 운영위원들 여

행가방 마다 가득 채워 보냈던 의약품들……. 그리하여 필리핀의 3곳의 나눔 협력처에 의약품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학교보건 지원은 2015년에도 뜻을 함께 해 주신 그린스토어와 부부약국의 기부에 힘입어 지속되고 있다.



필리핀 유진신부님께 의약품 전달

필리핀 3곳에 기본 의약품 지원

기생충 퇴치와 기초건강은 교육의 기초

함께 하는 사람들

후원회원 현황 (2014년 12월 31일 기준)

구분	계	결연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
회원수	1,121명	855명	257명	9명

이사회

이사장 김영욱(사제)	박영대(상임이사)	강은형(교수)
김상균(언론인)	김효식(기업인)	권병기(의사)
노지향(연극인, 교수)	유철종(기업인)	이범석(사제)
이종인(교수)	이종진(사제)	이재천(사제)
이창현(변호사)	한경택(기업인)	호인수(사제)
감사 : 김영환(회계사)	이상준(국제교류컨설턴트)	

배분 위원회

김희정(서울NPO지원센터)	성이혁수(NGO. 활동가)	이대훈(교수)
이상준(국제교류컨설턴트)		

운영 위원회

강경하	김용재	김정임
김현숙	서병기	심재찬

청년 봉사단

박영익	송지수	이득기
이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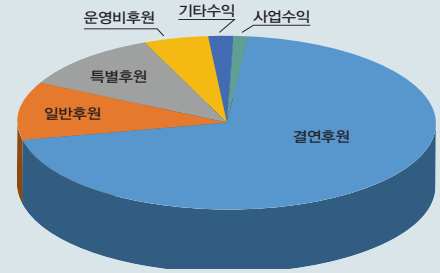
후원어린이 현황

대륙	국가	지역	함께하는 단체	14년	현재
아시아	네팔	카투만두	거룩한말씀의회	80 명	80 명
		포카라/카투만두	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23 명	23 명
	몽골		살레시오수녀회	8 명	7 명
		울란바트르	예수수도회	0 명	42 명
		울란바트르/바양호서/쥬모드	대구살트르성바오로수녀회	0 명	50 명
	베트남	까마우성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0 명	0 명
		빈중	성가소비녀회	17 명	17 명
	시리아	다마스코	살레시오수녀회	9 명	9 명
	인도	자칸드	마리아딸수도회	10 명	13 명
	캄보디아	빠일린	마리스타교육수사회	14 명	14 명
		퐁처레	살레시오수녀회	27 명	41 명
		프놈펜	(사)행복공장	24 명	22 명
	필리핀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0 명	47 명
		다바오	거룩한말씀의회	77 명	135 명
		마닐라	꽃동네수도회	64 명	51 명
		퀘존시티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12 명	12 명
		세부	말씀의선교수도회	58 명	68 명
		바클로드	바클로드교구바나고본당	35 명	11 명
마닐라		성가소비녀회	71 명	67 명	
퀘존시티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1 명	20 명	
바클로드	원죄없으신마리아교육선교수녀회	21 명	46 명		
아프리카	가봉	리브레빌	살레시오수녀회	6 명	10 명
	앙골라		살레시오수녀회	16 명	16 명
	우간다		꼰솔라따수도회	15 명	0 명
	차드	은자매나	성심수녀회	70 명	70 명
	탄자니아	남우파/페라미오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83 명	74 명
	카메룬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20 명	20 명
		야운데	살레시오수녀회	7 명	7 명
	케냐		전교가르멜수녀회	20 명	27 명
코트디부와르	아비장	그리스도의교육수녀회	9 명	9 명	
콩고공화국	킨사라	꼰솔라따수도회	29 명	29 명	
		살레시오수녀회	20 명	20 명	
오세아니아	미크로네시아	폰페이	도움이신마리아수녀회	10 명	10 명
	마셜제도		예수성심전교수녀회	12 명	12 명
남미	볼리비아	뿌에스토/산출리안/비루비루	성가소비녀회	16 명	25 명
		코차밤바	전교가르멜수녀회	12 명	12 명
	페루		성심수녀회	6 명	6 명
합계	19 국가		20개 단체	922 명	1,122명

2014년 연간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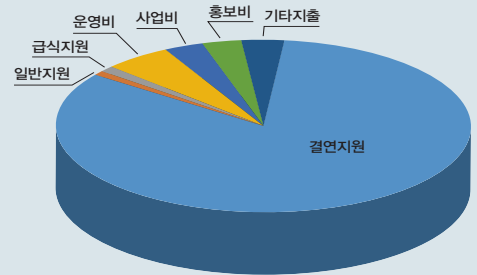
수입

수입 내역	금 액 (원)
결연 후원	208,010,000
일반 후원	36,130,450
특별 후원	35,900,000
운영비 후원	12,541,498
기타 수익	3,805,673
사업 수익	610,000
합 계	296,997,621



지출

지출 내역	금 액 (원)
결연 지원	202,349,209
일반 후원	5,460,000
급식 후원	5,524,000
운영비	11,780,030
사업비	7,883,305
홍보비	6,008,020
기타 지출	6,756,300
합 계	245,760,864



2014년 함께 해주신 회원

결연후원

*1구좌 강경순, 강대선, 강동훈, 강명선, 강병국, 강순희, 강애형, 강영민, 강영선, 강은형, 강정순, 강정심, 강혜진, 견영자, 경광석, 고금자, 고기혁, 고민정, 고승일, 고영식, 고영실, 고영욱, 고은희, 고진영, 고찬희, 고춘희, 고혜숙, 공선희, 공성호, 공지호, 박녕우, 박병수, 박진희, 박희선, 구혜정, 국민정, 권상혁, 권세영, 권순미, 권오연, 권오진, 권태연, 권하진, 권혜영, 기우람, 김갑수, 김경분, 김경숙, 김경인, 김경자, 김경희, 김경희, 김관식, 김광숙, 김기만, 김기미, 김기정, 김기현, 김나래, 김나영, 김나현, 김나원, 김낙원, 김능문, 김대중, 김도윤, 김도훈, 김도현, 김도훈, 김동각, 김동수, 김동운, 김말연, 김명숙, 김명순, 김명옥, 김명옥, 김명옥, 김묘연, 김미나, 김미숙, 김미숙, 김미숙, 김미애, 김미연, 김미영, 김미자, 김민경, 김민재, 김민정, 김민정, 김민해, 김민호, 김병덕, 김병욱, 김보용, 김비아, 김상건, 김상범, 김상화, 김석일, 김선경, 김선민, 김선화, 김성구, 김성록, 김성수, 김성은, 김성자, 김성진, 김송욱, 김승현, 김수정, 김수환, 김수희, 김승렬, 김승희, 김시경, 김신현, 김아영, 김애경, 김애숙, 김양임, 김연순, 김영기, 김영민, 김영수,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재, 김영찬, 김예지, 김예진, 김옥경, 김완구, 김용석, 김용재, 김우주, 김윤경, 김윤숙,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자, 김은주, 김은현, 김인식, 김일희, 김재범, 김재인, 김재현, 김재형, 김정천

사단법인 올마이키즈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56 신흥빌딩 401호

연락처 | 032-214-7700 팩스 | 032-214-7701

e-mail | allmykids@hanmail.net 홈페이지 | www.allmykids.or.kr

